

NEWS LET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특집 2탄] 일본의 대학과 지역교육협력

인구감소시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 / 이정연(동경대 교수)



우리마을 교육이야기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정선 행복교육지구

/ 김성수(정선교육지원청 장학사)



전국의 마을 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전정일(맑은샘교육연구회 대표) / 임경환(순천 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센터장)



알쓸교원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 수월성



What a Wonderful World 미래교육 이야기

메타버스! 그 거대한 기회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 김상균(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



행사 참여

2021년 대학혁신포럼 참석 :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과거, 현재, 미래



교육연구소 알림

여름방학 2021 Teach for Gangwon

<http://keri.kang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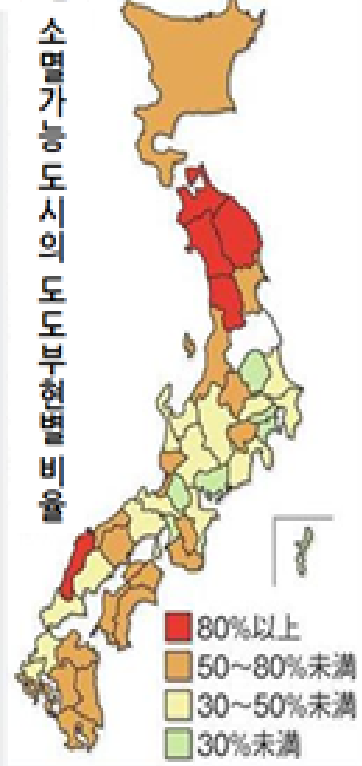


일본의 대학과 지역교육협력

인구감소시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

이정연 (동경대 교수)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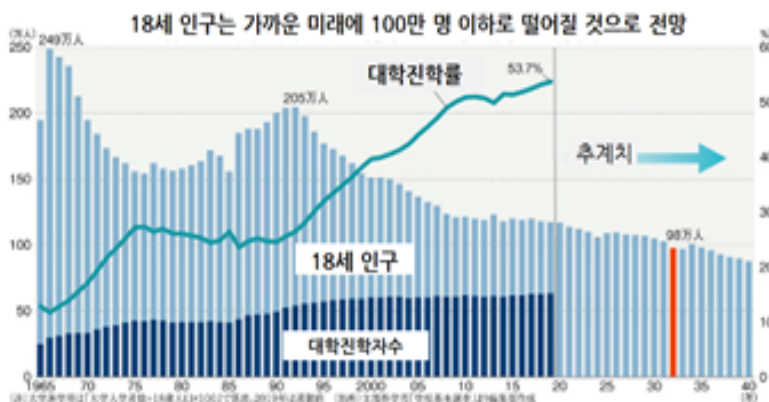
2014년 일본에서는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가 펴낸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5월 NHK에서도 인구감소 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NHK의 조사에 따르면 2008~2013년에 전국 22%에 달하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 인구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2040년 경에는 전국의 49.8%의 지자체에서 20~39세 여성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것은 정부가 예측한 수치(20.7%)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방 소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에서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들이 10여 년 전부터 노인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수도권에 요양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그에 따라 요양복지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0-30대 여성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경우 향후 지역 소멸이 일어날 가능성을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1>(산케이신문, 2014.5.9.)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을 ‘지방창생(創生)원년’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는 2008년(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는 가속화되고 있고, 2050년에는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3년 7월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는 저출산 대책 담당 대신까지 임명하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18세 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 중소사립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절반가량의 사립대학 재정 상태가 적자이다. 일본의 만 18세 인구는 2020년 현재 약 117만 명에서 2032년 이후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2 참조).

지역에서 학교나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은 그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을 양성해 왔고, 지역 산업체와의 연구협력·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해 왔다.



<그림2> 18세 인구 및 대학진학자수 추이(출처:문부과학성)

이렇게 지역의 교육 및 연구의 거점기관으로서 기능해 온 대학이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면 미래 인재들의 외부 유출은 물론 지역 산업진흥에도 큰 지장이 초래된다.

일본도 인구나 산업체 등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한국처럼 수도권으로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대학 소재지별 2019년 3월 졸업 예정자들(학부 및 대학원생 4,275명)의 출신지역과 취업내정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출신 지역의 대학을 나와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도 예전에 4년 정도 재직했던 도카이(東海)지역의 나고야대학(국립대학법인)에서 지도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 후 수도권이 아닌 출신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고야나 인근 지역에서 일하길 원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가족이 사는 출신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동경대 학생들도 중앙정부나 대기업에 취업해 동경에 남기보다는 자신들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이외로 적지 않다. <그림 3>의 조사에서 출신 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의 지역에서 80%이상의 학생들이 ‘애착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近畿지역)도 63%로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질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강해도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대학소재지역		응답 자수	(%)				지역 내 합계	지역 이외 합계	
			①지역출신· 지역 내 취업자	②지역출신· 지역 이외 취업자	③지역 이외 출신· 지역 내 취업자	④지역 이외 출신· 지역 이외 취업자			
2019 년 졸업	北海道	(103)	59.2		16.5	9.7	14.6	68.9	31.1
	東北	(156)	59.6		23.7	1.3	15.4	60.9	39.1
	北關東	(73)	35.6	16.4	1.4	46.6		37.0	63.0
	首都圏	(1,031)	66.6		5.5	20.3	7.6	86.9	13.1
	北陸・甲信越	(155)	52.9		19.4	6.5	21.3	59.4	40.6
	東海	(327)	70.0		18.7	2.4	8.9	72.5	27.5
	京阪神	(599)	48.6		20.7	11.7	19.0	60.3	39.7
	近畿	(91)	14.3	15.4	2.2	68.1		16.5	83.5
	中国	(139)	36.0		19.4	3.6	41.0	39.6	60.4
	四国	(83)	54.2		19.3	7.2	19.3	61.4	38.6
九州	(210)	66.2		21.9	1.9	10.0	68.1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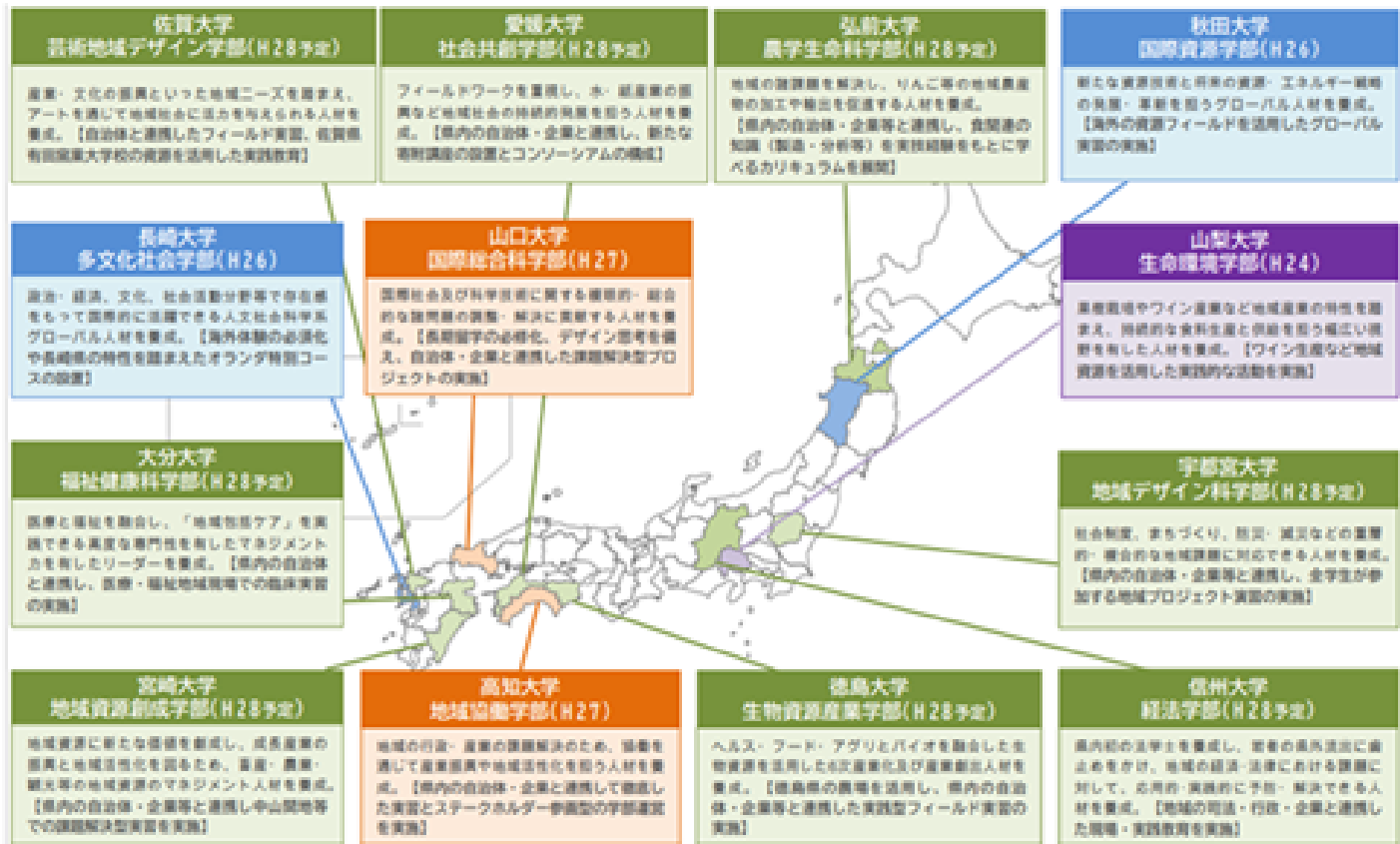
※지역 내 합계: ①지역출신·지역 내 취업자 + ③지역 이외 출신·지역 내 취업자
※지역 이외 합계: ②지역출신·지역 이외 취업자 + ④지역 이외 출신·지역 이외 취업자

<그림3>대학소재지별 졸업예정자의 출신지역 및 취업지역 (출처: 취직미래연구소, 2019)

이상과 같이 급속한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지역의 대학 진흥 및 청년의 고용기회 창출에 의한 수학(修學)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대학 및 지역 산업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은 강조되어 왔고 관련 정책도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문부과학성(교육부) 종합교육정책국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地(知)의 거점정비사업(COC: Center of Community)’이다. 2015-2019년은 지방창생의 이념이 추가되어 ‘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COC+)’로 발전되었고, 2020년부터는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활성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 프로그램 구축사업(COC+R)’로서 전개되고 있다.

고등교육국에서도 최근 대학과 지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 플랫폼의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역에 공헌하고 지역에게 지지받는 고등교육으로)'을 책정하였다.

COC사업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COC/COC+사업은 대학이 지역공헌을 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사업추진방법은 크게 '지역 관련 학부 신설'과 '학부횡단교육프로그램 개설'의 두 종류이다. 최근의 국립대학 조직개편의 흐름 속에서 선정 대학 중 지역 관련 학부를 신설하는 국립대학이 늘어났다(그림 4 참조).



〈그림4〉지역관련 학부 신설 국립대학(출처: 문부과학성, 2016)

예를 들면 인구 약 69만 명에 고령화율이 35.2%(2019년)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치현(高知縣)의 고치대학의 경우 COC와 COC+사업에 연속 선정되면서 2015년에 '지역협동학부'를 신설하였다. '지역을 혁신하는 새로운 인재 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치현의 전 지역을 교육·연구의 현장으로 삼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세 미나나 현장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지역 이해력, 기획 입안 능력, 협력 실천력 등의 지역협력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춘 '지역 협력형 산업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교수진의 전공분야도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경영학, 농업학, 환경학, 교육학, 지역디자인, 스포츠, 정보처리 등 매우 다양하다.

한편 COC사업과 같은 국가정책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 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나가노현(長野縣) 이이다시(飯田市)라고 하는 인구가 채 10만 명도 되지 않는 도농복합도시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인 교육'이 그 예이다. 이이다시는 지역에 4년제 대학이 없어 고교 졸업 후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가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거나 혹은 대학진학이나 취업으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이 U턴하고 싶어지는 지역 만들기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자체와 현내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지역인 교육'과목을 신설하였다. '지역인'이란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역에 공헌하는 사람을 말하고, '지역인 교육'이란 지역을 매니지먼트·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위의 고치 대학의 지역협동학부처럼 '지역인 교육'도 지역조사 및 현장실습 등을 위주로 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 운영에는 대학의 전문지식과 조언,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인 교육에는 대학 교원과 지자체의 평생교육 전문직원(공민관주사)이 함께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민관주사는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한다(그림 5 참조). 그 결과 지역과제를 스스로 발견·해결하려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향상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5〉지역인교육의 운영구조(출처: 이이다시, 2018)

일본의 학교나 대학은 오랫동안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이제 상호 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최근 대학들도 인식하고 있다. 인구 유입이나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대학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효과가 적지 않으나 향후 인구감소 시대에는 지역사회의 지원·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학의 존속과 발전도 어렵다. 머지않은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지방 창생'을 연호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학사가 들려주는 우리마을 교육이야기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정선 행복교육지구



김성수 (정선교육지원청 장학사)

대한민국 대표 폐광 지역인 정선군은, 인구 약 3만7천 명의 농산촌입니다. 산업화를 이끌던 광산이 하나둘씩 문을 닫자 지역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매년 신생아 수도 급격히 줄고 있는데, 2019년 정선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정선군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단 136명입니다.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줄어들면 학교는 작아지고, 작아지다 못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정선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이가 없으면 학교도 없어지고, 마을도 사라지게 되므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생을 늘리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인구를 늘리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정선군 역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구 유입'에서 '인구 유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역시 학교 통폐합과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마주한 지자체와 함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정선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 정선 배움의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학생·교직원,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정선교육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지역 특화 사업인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 모임'은 지역에 애착을 갖고 정주하는 교사, 마을 교육과정 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해 교직원 공동육아 동아리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부모 공동육아 동아리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동아리는 정선의 아이들이 이웃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주말행복 배움농장'은 부모와 자녀가 마을에서 함께 놀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행복 배움농장'은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 지역의 협동조합, 체험마을, 마을활동가, 마을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마을에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며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성장하는 마을을 그려가는 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요....

전국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01

전정일

맑은샘교육연구회 대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02

임경환

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센터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수월성(Excellence)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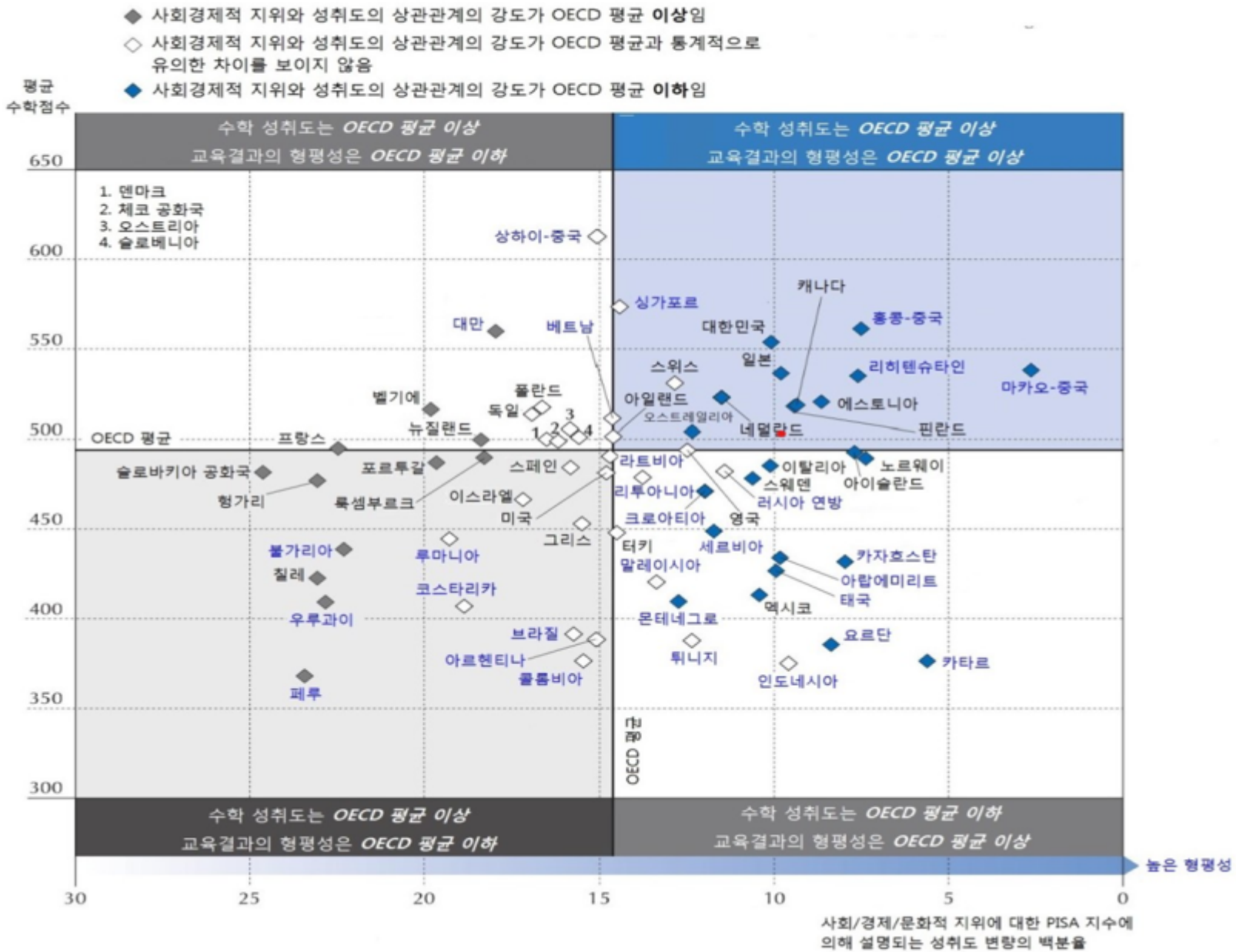
"학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고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학교의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는 것"

수월성은 영어 excellence의 번역어로서 우리말에 본래 없었던 새로운 말이다. 1983년 레이건 정부의 교육 수월성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가 내놓은 보고서, <위기의 교육>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등장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박영숙, 2010). 이 보고서에서 수월성은 "학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고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학교의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는 것"(p.14)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교육의 질이 매우 저하되었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초필수교과의 선정, 능력별 학급 편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91년 부시 정부에서 발의된 AMERICA 2000 Excellence in Education Act(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94년 클린턴 정부의 Goal 2000: Educate America ACT, 2002년 조지 부시 정부에서의 No Child Left Behind ACT를 거쳐 진행되었다. 크게 교육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검사 실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 학교에 대한 장려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호에서 공평성(equity)을 다루면서 잠깐 언급이 되었듯이, 수월성이 주로 평등성과 대립되는 가치처럼 보인다. 학교 선택이나 교과 선택 등과 관련하여 수월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월한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의 설치, 평준화 정책의 확대 등, 중등학교의 다양성을 놓고 치열하게 평등성-수월성의 대립구도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과연 수월성은 평등과 대립되는가? 아래 도표는 PISA 2012에서 수학점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평균이하일 뿐만 아니라, 2) 수학성취도도 높고, 3) 형평성(equity, 학생들간의 점수 편차가 낮은 정도)도 높은 사사분면에 속해 있다(그 이전의 PISA 2006년에도 한국의 위치는 성취도 평균 이상, 형평성 평균이상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바 있음). 물론 이 도표는 기술적(descriptive) 측면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쇄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뿐, 처방적(prescriptive) 측면에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려 할 때 수월성을 택할수록 형평성이 낮아지거나, 형평성을 위해서 수월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처방적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수월성과 형평성은 서로 겨냥하는 가치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도표 1.4 학생의 성취도와 형평성



수월성은 교육의 달성 기준, 즉 목표 차원의 가치인 데 반해서, 형평성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절차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이다(한혜정, 2008). 평등이나 형평성을 위한 실제적, 방법적 조치를 강구할 때, 모든 종류의 교육적 경험을 양적으로 똑같이, 즉 같은 기간의 교육을 모두에게 같은 수준(동일한 내용과 방법, 여건)으로 제공하는 획일적인 평등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우수한 집단의 존재, 사람들 간의 차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의 결과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도 난센스이다. "평등은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적용되는 개념이지, '평범함', '범속함'과 같은 의미의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등교육이 수월성 교육의 개념에 대립되는 것일 수 없다."(이돈희, 1999: 352).

피터스가 말했듯이(Peters, 이홍우 역, 2003: 178), 교육에 관련된 도덕적 쟁점은 평등 이외에도 자유나 질 높은 삶의 영위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각 원리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 수월성은 교육이라는 활동에 불박혀 있는 가치이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목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 excellence는 고대 그리스어 arete를 옮긴 말이다. 아레테는 virtue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속에는 목적론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우주의 각 존재는 저마다의 존재 이유,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구현하도록 자신이 가진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하는 상태가 아레테이다.

그래서 아레테(excellence)는 행동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습관과 훈련의 결과로 가지게 된 품성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행복을 뜻하는 단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happiness)가, ‘잘(well)’을 의미하는 ‘에우(eu)’와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daimo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에서 보여줄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행복한 삶은, 갑자기 닥친 행운이나 신의 은총덕분이 아니라, 품성으로서의 아레테 덕분에 좋은 삶이었다(Aristotle, 이창우 외 역, 2008: 545-8). 다시 말하지만 교육에서 수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교 우위의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엘리트주의를 연상하거나, 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경쟁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실적지상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관점에서의 수월성은 상대적 비교에 의해 특정 집단만이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수월성일 뿐이다. 교육의 개념에 불박한 수월성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편자이자 개성을 갖춘 특수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Excellence



*“Excellence is an art won by training and habituation:
we not act rightly because we have virtue or excellence,
but rather have these because we have acted rightly;
these virtues are formed in man by doing his actions;
we are we repeatedly do.*

Excellence, then, is not an act but a habit.”

— Will Durant, *The Story of Philosophy* (1926)



[참고문헌]

김인희, 이혜진(2016). 한국 교육에서 수월성의 의미와 실현 조건 탐색. 교육정책연구, 3, 39-81.

이돈희(1999). 교육정의론. 파주: 교육과학사.

한혜정(2008). 수월성의 교육적 의미. 교육학연구, 46(4), 187-206.

Aristotle, 이창우 외 역(2008). 니코마코스 윤리학. 파주: 이제이북스.

Peters, R. S. 이홍우 역(2003). 윤리학과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Schleicher, A. Equity, Excellence and Inclusiveness in Education,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789264214033-en.pdf?expires=1627182349&id=id&acname=guest&checksum=94D0CCDDEF294959F86A8F4F392B5144> 에서 2021. 7. 20 인출).

Th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1983).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

(https://edreform.com/wp-content/uploads/2013/02/A_Nation_At_Risk_1983.pdf 에서 2021. 7. 22 인출).



미래교육 이야기

What a Wonderful World

김상균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7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2021년 대학혁신포럼 참석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10시-12시
- 장소** 서울 드래곤시티/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내용**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 과거, 현재, 미래



2021년 대학혁신포럼
2021 UNIVERSITY INNOVATION FORUM

대학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하다
2021. 7. 14 (수) - 7. 20 (화)
SEOUL DRAGON CITY

대학교육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곳,
2021 대학혁신포럼에 초청합니다.

『대학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혁신대학 총장들과 구공 선영 최고위 미래학자 등 대학혁신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유명 석학들로부터 국내 학계, 기업인까지 대학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들이 함께 합니다.

7월 14일(수) ~ 20일(화)까지, 일주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초강연	기초강연 I	기초강연 II
 김종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준,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준, 서울대학교 총장

주요강연 I : 대학의 교육혁신의 동향		
 김종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준,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준, 서울대학교 총장

주요강연 II : 변화하는 학습지, 변화하는 대학	특별강연
 김종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준, 서울대학교 총장



강연 3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KNU 강원대학교

[2021년 대학혁신포럼]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
과거, 현재, 미래**

2021. 7. 16.(금)

발표자 남수경 (강원대 교수)

Heesook Lee(은)로 채팅하기



2021년 대학혁신포럼

남수경
강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향상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강원도 내 현장
교사와 사범대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사범대생의 원격
교육 전문성 강화

방학기간
주기적
학습지도로
학업 태도 개선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생에게 지역사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및
국립대 공공성 확보

2021

Teach for Gangwon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신청 상황에 따라
멘토와 멘티 1:1 또는 1:3 수준
소수 정예 맞춤형 원격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1차 여름 방학 : 2021년 7월 21일 ~8월 8일 주 3회×2주 (총 6시간)
2차 겨울 방학 : 2022년 1월~2월 주 2회×6주 (총 12시간)

신청 방법

학교별로 중학생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별도 양식 (향후
신청기간 및 양식은 공문으로 송부)으로 담당교사가 신청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학교의 소재지,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함
여름방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겨울방학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

* 코로나19나 강원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